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2호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2015 Vol. 11. No. 2. pp.201-220

http://dx.doi.org/10.14698/jkcce.2015.11.201

유아교사의 개인특성과 유아교육기관 특성이 유아교육기관의 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

박창현*

Effects of Personal Background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eachers on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Condi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Classroom

Park, Chang Hyun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그동안 유아교사의 학력과 자격에 중점을 두어왔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교사의 학력과 경력, 기관유형과 학급규모, 교육과정 편성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유아교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유아교실의 질은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 유아교육과정의 질, 상호작용의 질로 구성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교실의 질에는 유아교사의 개인특성변수인 경력이나 학력보다는 기관유형이나 학급규모와 같은 기관특성변수의 영향력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사립보다 국공립으로 갈수록 유아교육기관의 질이 높았다. 유아교실의 질을 구성하는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 유아교육과정의 질, 상호작용의 질의 변수에서 공통적으로 기관유형변수의 설명력이 보다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추후 연구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유아교육, 보육, 질, 유아교사

* 제1저자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E-mail : subi0407@hanmail.net)

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경험하는 유아들은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이 좋아지고, 학습의지가 높아져,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Burchinal, Cryer, Clifford, & Howes, 2002; Vandell, 2004). 그동안 양질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영유아교육기관의 공교육화 및 공공성의 역사와 함께 논의되어 왔다(김희연, 2013; 나정, 1997; 나정, 김효겸, 박재윤, 장영희, 정미라, 1997; 나정, 신동주, 김재웅, 1996; 백선희, 2011). 2013년 이후에는 3-5세 누리과정을 위한 유아학비가 전 계층에 지원되면서 기관의 질에 대한 기대 효과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 변인이 중요하다. 교사는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실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박창현 2012; 박창현, 박찬옥, 2012; 염지숙, 2012). 이런 이유로 유아교사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교실의 질도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학력의 측면에서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어휘가 다양하고, 유아에게 훨씬 민감하였다(Barnett, 2004; Bowman, Donovan, & Burns, 2001). 또한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은 교사 교육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Burchinal, Cryer, Clifford,, & Howes, 2002; Vandell, 2004).

현장에서는 '교실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는 담론이 주를 이루었고, 양질의 교사 양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조형숙, 이경민, 2004; Barnett, 2004; Shonkoff & Phillips, 2000). 교사들은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이 높을 때, 양질의 교육과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이기숙, 홍용희, 박은혜, 김희진, 2002; OECD, 2012). 이런 이유로 교사의 학사 소지 여부와 학력 및 경력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과 교사의 교육 수준 간의 관계는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유아교사의 교육 수준을 설명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들이 다면적이기 때문이다. Tout와 Berry(2006), Tout, Zaslow 그리고 Berry(2005)는 교사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자격증의 소지 여부가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과 교사의 교육 수준과의 상관은 기본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학급 규모나 교사 대 유아 비율과 같은 기관특성 변인이 고려되면, 이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었다(Blau, 2000; Early, Bryant, Pianta, Clifford, Burchinal, & Ritchie, 2006; Phillips, Mekos, Scarr, McCartney, & Abbott-Shim, 2000). Early, Bryant, Pianta, Clifford, Burchinal, & Ritchie (2006)의 연구에 따르면, 만 4세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질은 교사의 학력 및 경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교육적 성취는 학사 학위의 유무와 같은 이분법적 변수로 환원될 수 없는 보다 복잡한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아교사의 경력 및 학력과 같은 개인특성변인과 기관특성변인들이 유아교실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유아교사의 학력과 경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교사의 학력과 경력이 중요하다는 명제를

부정하기보다, 학력과 경력 이외에 어떤 변인들이 유아교실의 질을 높이는데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 혁신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역량 강화에만 다소 많은 중점을 두는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중점 사항이 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quality)'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고, 양질(good quality)의 특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란 프로그램의 질(program quality),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교육기관의 질을 의미한다(Wesley & Buysse, 2010). 이는 좋은 유치원과 좋은 어린이집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질의 개념은 가치 평가가 포함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성에 따라 판단될 소지도 있다(황규호, 2013).

전통적으로 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은 구조적 질과 과정적 질로 설명되었다. 구조적 질은 유아가 경험하는 과정의 틀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유아가 참여하는 기관의 위치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은 환경적 맥락을 포함한다(박창현, 2012; Hayes, Parlmer, & Zaslow, 1990). 반면 과정적 질이란 유아가 교육 환경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경험들은 유아의 안녕감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Litjens & Taguma, 2010). 우선 구조적 질과 환경의 질은 비교적 평가하고 측정하기 쉬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보편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아교실의 질은 운영자의 경험의 많을수록,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교실의 집단이 소집단일수록,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낮을수록, 교사의 이직률이 낮고, 교사의 봉급이 높을수록 높아진다(OECD, 2012). 교사의 교육경력은 유아교육기관의 질 개선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질적 변인이다(김은설, 2014; 이미화, 2014).

한편 버지니아 대학의 Pianta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지금껏 해왔던 기관의 질을 평가방법이 유아교육의 질을 온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질 평가 시스템인 QRIS의 평가 항목 중,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 변인 만이 유아교육의 질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은 유아의 개인차와 상호작용의 질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abol, Soliday Hong, Pianta, & Burchinal, 2013). 이러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은 교육의 과정적 질을 의미한다. 과정적 질의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 교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기관의 질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Howes, Phillips & Whitebook, 199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과 프로그램의 질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학력, 경력과 교사 대 유아비율, 집단 크기, 설립유형과 관련이 있었다(서문희, 최윤경, 김문정, 2011; 이숙자, 공병호, 성영화, 2011; 이윤경,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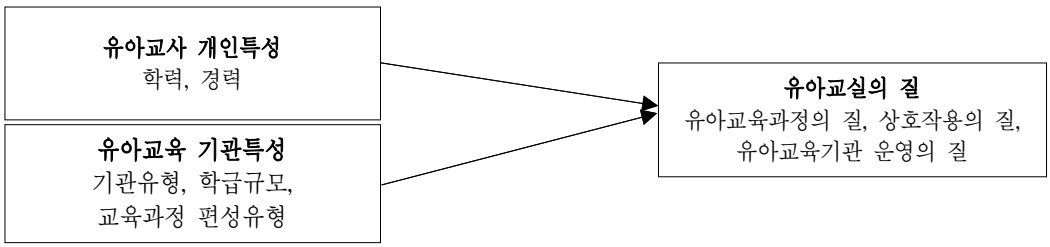
이외에도 종일제, 반일제 등의 교육과정 편성유형 (Clark & Kirk, 2000; Viadero, 2002), 기관 운영경험의 질(Ghazvini, Alisa, Readdick, & Christine, 1994), 교사 대 유아비율(Howes, James, & Ritchie, 2003), 교사교육(Barnett, Tarr, Lamy, & Frede, 2001; Barnett, Tarr, & Frede, 1999), 교사연수(Ghazvini & Mullis, 2002)가 유아교육과 보육 프로그램의 질과 관계가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은 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할수록 높아졌다(Phillipsen, Burchinal, Howes, & Cryer, 1997). Ishimine, Talyer 그리고 Bennett(2010)는 유아교육과정과 구조적 질과 관계적 질 간의 관계 모형을 통해 과정적 질이 구조적 질을 매개하며 유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창현, 2012). 즉, 구조적 질에 해당하는 교사 대 유아비율이나, 유아집단의 규모 등의 변인들은 결국

교사의 상호작용 수준과 같은 과정적 질을 매개하거나 교육과정 운영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하여 유아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유아교실에서의 질로 보았다. 유아교실의 질이 높아질수록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였으며, 유아교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교육과정의 질, 상호작용의 질, 원 운영의 질을 설정하였다. 유아교사 변인(학력과 경력)과 유아교육기관의 변인들(기관유형, 학급규모, 교육과정 편성유형)이 유아교실(교육과정의 질, 기관운영의 질, 상호작용의 질)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사 개인특성과 유아교육기관 특성은 기관운영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2. 유아교사 개인특성과 유아교육기관 특성은 교육과정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3. 유아교사 개인특성과 유아교육기관 특성은 상호작용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 개인특성과 유아교육 기관특성이 유아교실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에는 유아교사 개인특성(학력, 경력)과 유아교육 기관특성(기관유형, 학급규모, 교육과정 편성유형)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종속 변수로는 유아교실의 질을 설정하였으며, 그 하위 변수로는 유아교육과정의 질, 상호작용의 질, 유아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포함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유아교사의 개인특성인 학력은 유아교사의 최종 학력으로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의 3가지 범주로 측정되었다. 경력은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한 기간으로 연수로 측정하였다. 유아교육 기관특성에 포함된 기관유형은 유아 교사가 근무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으로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의 4개 범주로 측정되었다. 학급규모는 유아교사가 근무하는 유아교육기관의 학급수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형은 누리과정만 실행하는 기본 운영과 누리과정과 종일반을 운영하는 종일반 운영의 2가지 범주로 측정되었다. 종속변수에는 유아교실의 질을 설명하는 3개의 변수를 포함하였다. 하위 변수로는 유아교육과정의 질, 상호작용의 질,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로 구성하였다. 유아교육과정의 질은 누리과정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창의적인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상호작용의 질은 상호작용의 민감성, 자유, 편안하고 행복한 분위기, 교사-유아, 유아-유

아, 유아-교구 간 상호작용의 질 등으로 정의하였다.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민주적 참여와 유아교육기관의 적합한 환경 등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독립 변수 중 질적 변수인 기관유형과 교육과정 편성유형은 가변수로 전환하여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되었다. 기관유형은 4개의 하위범주로 척도가 구성되어 3개의 가변수로 전환하여 투입하였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형은 2개의 하위범수로 척도가 구성되어 그대로 회귀분석에 투입되었다. 즉, 기관유형은 기관유형d1, 기관유형d2, 기관유형d3으로 전환되었고, 교육과정 편성유형은 0과 1로만 코딩되어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형d1로 전환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임의표집을 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자 표집을 위해 경기도 S시를 표집을 위한 행정단위로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경기도 S시는 경기도 내에서 유아교육기관의 수가 가장 많고, 해당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와의 협조를 통해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 및 연구분석에 대한 지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기도 S시에 있는 유아교육기관 중, 50개의 유아기관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설문조사를 허락하는 기관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허락한 유아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유치원은 총 유치원 25개, 어린이집 총 25개였다. 어린이집의 경우, 만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영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상 연령이 다르므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실행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설문조사를 하기 전, 교사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응답자의 개인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응답자 모두가 여자였다. 연령의 경우에는 평균이 32.6세였고, 20대가 95명(48.2%), 30대가 50명(25.4%), 40대가 42명(21.3%), 50대 이상이 10명(5.1%)이었다. 그리고 학력의 경우에는 전문대졸이 78명(39.6%), 4년제 대졸이 69명(35.0%), 대학원이상 50명(25.4%)이었다. 경력의 경우에는 교육경력과 보육경력을 포함하였으며, 경력은 평균이 13.7년이었다. 현재 재직 중인 유아교육기관은 국공립유치원 89명(45.2%), 사립 유치원 48명(24.4%), 국공립 어린이집 34명(17.3%), 민간 어린이집 26명(13.2%)이었다. 교과편성운영유형의 경우에는 누리과정+종일반 108명(54.8%), 누리과정반 89명(45.2%)이었다. 다음으로 경력의 경우 평균이 13.7년이었고 최소 2년에서 최대 42년까지 비교적 범위가 크게 나타났다. 학급규모의 경우에는 평균이 5.7개 학급 수였고 최저 1개 학급에서 최대 14개 학급까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개인 특성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응답자의 개인배경 특성 (*N*=197)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유아교사 개인특성	학력	전문대 졸	78	39.6	.	.
		4년제 졸	69	35.0		
		대학원 재학이상	50	25.4		
	경력	5년 이하	20	10.2	13.7	9.16
		6-10년	78	39.6		
		11-15년	41	20.8		
		16-20년	21	10.7		
		21년 이상	37	18.8		
	연령	20대	95	48.2	32.6	8.96
		30대	50	25.4		
		40대	42	21.3		
		50대	10	5.1		
유아교육 기관특성	기관유형	국공립 유치원	89	45.2	.	.
		사립 유치원	48	24.4		
		국공립 어린이집	34	17.3		
		민간 어린이집	26	13.2		
	학급규모	1-5학급	107	54.3	5.7	2.43
		6-10학급	81	41.1		
		11학급 이상	9	4.6		
	교육과정 편성운영	누리과정 기본 운영	89	45.2	.	.
		누리과정+종일반 운영	108	54.8		

학력의 경우 3개 학력 범주가 20%에서 30% 정도로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에서는 유치원이 전체의 70% 정도로 대다수였다. 교육과정편성운영 유형의 경우에는 종일반 운영이 54.8%로 2개 범주가 유사한 분포로 구성되었다. 유아교실의 질의 경우 평균이 4.4였고, 3개의 하위 변수인 유아교육과정의 질, 상호작용의 질,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의 경우에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유아교실의 질의 경향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유아교실의 질의 구성과 일반적 경향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유아교실의 질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	2.71	5.00	4.41	.48
	유아교육과정의 질	2.57	5.00	4.36	.52
	상호작용의 질	3.29	5.00	4.42	.41

2. 연구도구

설문지에는 조사대상자의 유아교사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 교육경력, 보육경력)을 측정하기 위한 5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유아교육 기관특성(기관유형, 학급규모, 교육편성운영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유아교육과정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32문항이 포함되었다. 유아교실의 질 측정 문항은 상호작용의 질 측정문항 8개, 유

아교육과정 질 측정 문항 8개,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 측정문항 16개로 구성되었다. 최종 41문항의 조사도구가 활용되었다. 유아교사 개인특성 및 유아교육 기관특성 변수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응답자의 동의수준을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표 3〉 조사도구의 구성

변수		문항 예시	문항수
유아교사 개인특성		성별, 연령, 학력, 교육경력, 보육경력	5
유아교육 기관특성		기관유형, 학급규모, 교육편성운영유형	3
유아교실의 질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	'우리 원은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편이다.', '우리 원은 안전하고 보호적인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리 원은 유아의 영양과 위생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리 원은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기관 내 평가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등	16
	유아교육과정의 질	'나는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나는 놀이중심의 통합적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유아의 발달기록을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모 면담에 활용하고 있다.' 등	8
	상호작용의 질	'나는 유아에게 자발적인 놀이의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다.', '나는 유아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권한을 허용하는 편이다.' 등	8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의 질을 유아교실에서의 질로 보고, 유아교육과 보육 환경을 측정하는 척도인 ECERS-R(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ECERS)(Harms & Clifford, 1980; Harms, Clifford & Cryern 1998), 유아학급의 질 평가 척도인 CLASS(Pianta, La Paro Hamre, 2008)의 항목, 한국 유아교육과정의 질을 측정하는 박창현(2012)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자는 유아교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변인으로 유아교육과정의 질,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의 질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의 질은 OECD(2012)의 질의 지표 중, 원장의 리더십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변인에 해당하는 지표와 박창현(2012)의 유아교육과정 실행 교사평정도구를 참고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실행 수준의 정도를 측정하는 교사평정척도이다. 예를 들어, '우리 원은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편이다.' 우리 원은 안전하고 보호적인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우리 원은 유아의 영양과 위생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리 원은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기관 내 평가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문항들의 평균 신뢰도는 .88이었다.

유아교육과정의 질은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 척도(이은해 · 이기숙, 1996)와 OECD(2012)의 질의 지표 중, 교육과정(프로그램)과 관련된 질의 지표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구성

하였다. 조사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실행 수준의 정도를 측정하는 8개의 교사 평정 척도이다. 예를 들어, ‘나는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나는 놀이중심의 통합적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유아의 발달기록을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모 면담에 활용하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문항들의 평균 신뢰도는 .84로 우수한 편이었다.

교사-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은 유아학급의 질 평가 척도인 CLASS의 항목 중, 정서적 지원인 교사의 민감성과 유아의 관점에서 고려하기 등의 항목을 참고하여(Early et al., 2005; Pianta, La Paro, Payne, Cox, & Bradley, 2002)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조사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실행 수준의 정도를 측정하는 8개의 교사 평정 척도이다. 예를 들어, ‘나는 유아에게 자발적인 놀이의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다.’, ‘나는 유아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권한을 허용하는 편이다.’ 등이 총 8개 문항이다. 측정 문항들의 평균 신뢰도는 .89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설문조사를 위하여 2014년 6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3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이중 220부(73.3%)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하고 197부(89.5%)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상의 조사도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조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수의 관련성을 잠정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주요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12.0영어버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4.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조사도구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위변수가 존재하는 유아교육과정의 질 을 측정하는 32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기준은 공통성(communality) .3이상, 고유치(eigan value) 1.0이상, 요인 적재값 .5이상으로 설정하고 요인 회전은 직각회전(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설명력은 50% 이상을 적용하였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문항은 제거하면서 반복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교실의 질의 경우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요인 1은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 측정문항 7개로 구성되었고, 요인2는 유아교육과정의 질 측정문항 7개, 요인 3은 상호작용의 질 측정문항 7개로 구성되었다. 분석과정에서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의 9개, 유아교육과정 질의 1

개, 상호작용의 질의 1개 문항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제거되었다.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행렬의 총 설명력은 약 57.4%로 안정적이었고, 각 요인별 신뢰도는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이 .865, 유아교육과정의 질 .883, 상호작용의 질 .844로, 유아교실의 질 전체 수치는 .926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조사도구의 타당도의 경우 11개 문항이 소실되었으나, 3개의 요인은 연구자의 의도대로 구성되어 부분적으로 타당도가 인정되었다. 소실된 문항의 대부분은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 요인에 대한 문항이었다. 신뢰도의 경우에도 매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4> 유아교실의 질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문항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	29	**.730**	.285	.100
	23	**.729**	.146	.257
	22	**.722**	.106	.209
	28	**.717**	.242	.176
	27	**.698**	.050	.167
	21	**.679**	.258	.176
	26	**.587**	.356	.138
유아교육과정의 질	14	.219	**.748**	.313
	13	.180	**.721**	.307
	15	.374	**.703**	.187
	12	.064	**.680**	.298
	11	.213	**.659**	.306
	31	.491	**.606**	.043
	32	.495	**.573**	.127
상호작용의 질	5	.132	.017	**.715**
	4	.142	.226	**.707**
	1	.040	.252	**.663**
	3	.247	.303	**.650**
	2	.199	.240	**.649**
	6	.203	.138	**.632**
	8	.253	.308	**.624**
고유치		4.393	3.913	3.739
설명력(%)	57.359	20.918	18.635	17.806
Cronbach의 α 계수	.926	.865	.883	.844

Ⅲ.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별로 분석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변수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상관분석에 투입된 10개 변수 간의 상관계수 특성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상관계수가 -.026에서 -.500로 아주 낮은 수준부터 중간 이상의 수준까지의 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변수들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제외하고는 기관유형d3과 유

아교육과정의 질(-.531)이었고, 그 다음으로 학력과 경력(.468), 기관유형d1과 학급규모(.455)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 더미변수와 하위변수들은 부적 상관관계이거나 상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주요변수의 상관계수 분석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9	10
학력(1)	1.000									
경력(2)	.468**	1.000								
기관유형d1(3)	-.286**	-.293**	1.000							
기관유형d2(4)	-.274**	-.138	-.259**	1.000						
기관유형d3(5)	-.100	-.063	-.221**	-.178*	1.000					
학급규모(6)	-.179*	-.087	.445**	-.008	-.301**	1.000				
교육과정 편성유형d1(7)	-.124	-.020	-.174*	-.071	.354**	-.147*	1.000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8)	.111	.183*	-.116	.082	-.319**	.165*	-.026	1.000		
유아교육과정의 질(9)	.148*	.238**	.060	-.031	-.531**	.260**	-.222**	.644**	1.000	
상호작용의 질(10)	.246**	.224**	-.019	-.160*	-.177*	.081	-.058	.505**	.612**	1.000

주: 기관유형 d1~d3, 교육과정 편성유형 d1은 질적 변수를 양적 변수화한 가변수(더미 변수)를 의미함.
* $p<.05$, ** $p<.01$

1.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에 대한 유아교사 개인특성과 유아교육기관 특성의 영향

위계적 회귀모형 중 1단계 모형에는 유아교사 개인특성을, 2단계 모형에는 유아교육 기관특성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3개로 총 3개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표 7>과 같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VIF와 공차의 값이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1단계 모형에서는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에 대한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경력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3.4%였다. 2단계 모형에서는 기관유형d1, 기관유형d3, 학급규모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이때 결정계수가 .184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1단계 모형에 대비한 증분설명력(ΔR^2)은 .150로, 유아교육 기관특성이 추가 투입됨으로써 증가된 설명력이 15.0%였다. 2단계 모형을 보면, 유아교육 기관특성에서 기관유형d3가 가장 강한 영향을 주었고, 다음으로 기관유형d1, 학급규모의 순으로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에 영향을 주었다.

기관유형이 가변수로 투입되어 이를 통합하여 분석하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회귀방정식에서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 절편값이 4.248이었다. 그리고 기관유형d2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 절편값은 3.982로 동일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절편값이 3.761이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은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고,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급규모의 경우에도 회귀계수가 유의하였다. 회귀

계수는 정적 관계를 보였으므로 학급규모가 증가할수록 유아교육가관 운영의 질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6〉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모형		1단계							2단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차	VIF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상수)		4.248	.088		48.140	.000			4.203	.161		26.037	.000		
유아교사 개인특성	학력	.020	.049	.032	.401	.689	.781	1.281	-.003	.051	-.004	-.049	.961	.615	1.626
	경력	**.009**	**.004**	**.168**	**2.095**	**.037**	**.781**	**1.281**	.006	.004	.112	1.455	.147	.736	1.358
유아교육기관 특성	기관유형d1								**-.266**	**.100**	**-.237**	**-2.676**	**.008**	**.554**	**1.805**
	기관유형d2								-.026	.102	-.020	-.251	.802	.684	1.462
	기관유형d3								**-.487**	**.111**	**-.342**	**-4.395**	**.000**	**.717**	**1.395**
	학급규모								**.038**	**.015**	**.190**	**2.488**	**.014**	**.744**	**1.343**
	교과편성유형d1								.082	.070	.085	1.177	.241	.837	1.195
R^2		.034 (aR^2=.024, F=3.421, *p*=.035)							.184 (aR^2=.154, F=6.059, *p*=.000)						
ΔR^2		.							.150 (F=6.950, *p*=.000)						

주: 기관유형 d1-d3, 교육과정 편성유형 d1은 질적 변수를 양적 변수화한 가변수(더미 변수)를 의미함.

2. 유아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유아교사 개인특성과 유아교육기관 특성의 영향

유아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표 8〉과 같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VIF와 공차의 값이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1단계 모형에서는 유아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경력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5.8%였다. 2단계 모형에서는 기관유형d2, 기관유형d3, 학급규모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이때 결정계수가 .359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1단계 모형에 대비한 증분설명력(ΔR^2)은 .301로, 유아교육 기관특성이 추가 투입됨으로써 증가된 설명력이 30.1%였다. 2단계 모형을 보면, 유아교육 기관특성에서 기관유형d3이 가장 강한 영향을 주었다.

기관유형이 가변수로 투입되어 이를 통합하여 분석하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회귀방정식에서 유아교육과정의 질 절편값이 4.276이었다. 그런데 기관유형d1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과정의 질의 절편값은 4.276으로 동일하였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절편값은 4.078, 민간어린이집의 절편값은 3.500이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정의 질은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고,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

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급규모의 경우에도 회귀계수가 유의하였다. 회귀계수는 정적 관계를 보였으므로 학급규모가 증가할수록 유아교육과정의 질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7〉 유아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모형		1단계							2단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차	VIF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상수)		4.136	.093		44.677	.000			4.276	.152		28.137	.000		
유아교사 개인특성	학력	.031	.051	.047	.601	.549	.781	1.280	-.027	.048	-.042	-.564	.574	.616	1.624
	경력	**.012**	**.004**	**.216**	**2.736**	**.007**	**.781**	**1.280**	**.010**	**.004**	**.180**	**2.648**	**.009**	**.735**	**1.361**
유아교육기관 특성	기관유형d1								-.158	.094	-.132	-1.687	.093	.555	1.802
	기관유형d2								**-.198**	**.096**	**-.146**	**-2.071**	**.040**	**.685**	**1.460**
	기관유형d3								**-.776**	**.104**	**-.511**	**-7.438**	**.000**	**.718**	**1.392**
	학급규모								**.035**	**.014**	**.164**	**2.435**	**.016**	**.745**	**1.342**
	교과편성유형d1								-.054	.066	-.052	-.821	.413	.837	1.194
R^2		.058 (aR^2=.049, F=6.009, *p*=.003)							.359 (aR^2=.335, F=15.122, *p*=.000)						
ΔR^2		.							.301 (F=17.731, *p*=.000)						

주: 기관유형 d1-d3, 교육과정 편성유형 d1은 질적 변수를 양적 변수화한 가변수(더미 변수)를 의미함.

3. 상호작용의 질에 대한 유아교사 개인특성과 유아교육기관 특성의 영향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의 질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표 9〉와 같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VIF와 공차의 값이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1단계 모형에서는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에 대한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학력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7.6%였다. 2단계 모형에서는 기관유형d3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이때 결정계수가 .122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1단계 모형에 대비한 증분설명력(ΔR^2)은 .047로, 유아교육 기관특성이 추가 투입됨으로써 증가된 설명력이 4.7%였다.

기관유형이 가변수로 투입되어 이를 통합하여 분석하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회귀방정식에서 상호작용의 질 절편값이 4.195이었다. 그런데 기관유형d1과 기관유형d2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의 상호작용의 질의 절편값은 4.195로 동일하였다. 반면에 민간 어린이집의 절편값은 3.984였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질은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민간 어린이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상호작용의 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모형		1단계							2단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차	VIF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차	VIF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상수)		4.158	.073		57.160	.000			4.195	.141		29.740	.000		
유아교사개인특성	학력	**.092**	**.040**	**.180**	**2.304**	**.022**	**.781**	**1.280**	.066	.045	.129	1.487	.139	.616	1.624
	경력	.006	.003	.140	1.793	.075	.781	1.280	.005	.004	.121	1.526	.129	.735	1.361
유아교육기관특성	기관유형d1								-.060	.087	-.063	-.693	.489	.555	1.802
	기관유형d2								-.165	.089	-.153	-1.863	.064	.685	1.460
	기관유형d3								**-.211**	**.097**	**-.175**	**-2.177**	**.031**	**.718**	**1.392**
	학급규모								.015	.013	.091	1.157	.249	.745	1.342
	교과편성유형d1								.012	.061	.014	.190	.850	.837	1.194
R^2		.076 (aR^2=.066, F=7.931, p=.000)							.122 (aR^2=.090, F=3.759, p=.001)						
ΔR^2		.							.047 (F=3.007, p=.031)						

주: 기관유형 d1-d3, 교육과정 편성유형 d1은 질적 변수를 양적 변수화한 가변수(더미 변수)를 의미함.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학력 및 경력 변수와 유아교육기관의 유형, 학급규모, 교육과정 편성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유아교실의 질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실의 질에는 유아교사의 개인특성 변수인 경력이나 학력보다는 기관의 유형이나 학급규모와 같은 기관특성 변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의 경우, 교사의 개인특성 변수의 설명력 보다, 기관특성의 설명력이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질도 정적으로 높아지는 관계가 나타났다. 기관특성 변수 중에는 기관유형d1, 기관유형 d3, 학급규모의 영향이 나타났다. 기관유형의 경우, 부적인, 학급규모는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기관유형 가변수의 분석결과를 통합하면,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운영의 질은 주로 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학부모 참여와 관련된 요인으로, 유아교실에 영향을 주는 행정적, 환경적 지원 변수이다. 그러므로 기관운영의 질은 교사의 개인특성 변인보다 기관 변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유아교육과정의 질의 경우, 교사의 개인 특성 변수의 설명력 보다, 기관특성의 설명력이 30.1%p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유아교육과정의 질도 정적으로 높아지는 관계가 나타났다. 개인특성변인보다 기관특성 변인이 5배 이상으로 설명력이 높았다. 기관특성변수가 독립변수로 투입된 2단계 모형 분석결과에서도 경력의 정적인 영향은 지속되었다. 그리고 기관특성변수 중에는 기관유형d2, 기관유형d3, 학급규모의 영향이 나타났다. 기관유형의 경우, 부적인, 학급규모는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학급규모가 증가할수록 유아교육과정의 질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 가변수의 분석결과를 통합하면, 유아교육과정의 질은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고,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창현(2012)은 유아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상호작용의 질의 경우, 교사의 개인 특성 변수의 설명력 보다, 기관특성의 설명력이 4.7%p 높게 나타났다. 1단계에서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유아교육과정의 질도 정적으로 높아지는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 변수도 1단계만 유의미하고 2단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관특성변수 중에는 기관유형d3의 영향이 나타났다. 기관유형d1과 기관유형d2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상호작용의 질은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민간어린이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특성의 설명력이 5%p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호작용의 질에는 이상의 변수들이 아닌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의 상호작용의 역량은 과정적 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사 자체의 인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종합하면, 유아교실의 질을 구성하는 기관운영의 질, 유아교육과정의 질, 상호작용의 질 변수에서 공통적으로 기관유형이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영유아교육기관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의 순으로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유치원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된 이유에 대하여 교사의 봉급이나 교사의 처우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아교사는 기관 유형에 따라 교사의 봉급과 복지, 처우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지만, 사립 유치원 인건비는 처우개선비의 명목으로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장시간 보육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서문희, 최윤경, 김문정, 2011; 백선희, 2011). 이러한 구조는 사립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직무만족을 낮게 하고, 교사의 신분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교실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관특성 변인에서 학급규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아교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체의 학급규모를 학급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급 수가 많아지면,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대형화될수록 학급의 수가 많아진다.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들은 3학급 미만보다 7개 이상의 학급을 운영하는 기관의 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기관의 학급 수가 많다는 것은 유아들의 정원수가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학부모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원 운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교사의 복지와 처우개선 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학교, 작은 학급의 질이 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경기도 교육청, 2012; 이정훈, 2003). 유아수가 연령에 따라 동일하게 배치된 상황이라면, 학급수가 적은 기관과 학급수가 많은 기관은 질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학급수가 많음에도 높은 질을 유지하는 기관은 어떤 측면에서의 질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할 점이 많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S 지역의 국공립,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을 하였다.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사 평정 척도이므로,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질은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영아반 보육 교사나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사들을 포함시키지 못했으므로,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연구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 연수에 관한 변인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수준과 교사연수의 정도는 유아교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OECD, 2012).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교사연수는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교사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전교육, 현직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멘토링, 코칭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맞춤형 교사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Fukkink & Lont, 2007).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 규모와 교사 대 유아 비율의 영향력을 다루지 않았는데, 교사 대 유아 비율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의해 기관 평가의 한 지표로 관리되기 때문에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정 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육의 질과 교사-유아와의 비율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Love, Ryer, & Faddis, 1992; Scarr, Eisenberg, & Deater-Deckard, 1994).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집단규모와 교사 대 유아 비율은 유아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교육과정 편성유형은 유아교실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기존의 반일제, 종일제 개념이 아닌, 연령에 상관없이 4-5시간 자율적 운영이라는 개념의 혼란으로 교육과정 운영 시간의 의미에 관한 연구들이 실시되었다(최은영, 장혜진, 2014). 김은설, 유해미, 엄지원(2012)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기관 운영시간은 평균 11-12시간, 유아이용시간은 7시간 30분 내외, 누리과정은 4시간 내외로 보고되었다.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아가 기관에서 경험하는 누리과정과 종일제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껏 유아교사의 학력과 경력, 자격이 유아교실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유아교사가 속한 기관의 설립 유형이 보다 영향력 있게 나타났다. 이는 교실의 질은 교사의 수준보다 교육환경과 유아교육의 공적 관리 기

제와 보다 많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립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는 유아수는 약 79%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질에 관한 문제가 부모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고시를 도입하자는 여러 정책적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한겨레, 2015년 1월 27일자). 그러나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양육의 기술이 높은 교사와 스펙이 좋고 학위가 높지만 유아들의 요구에 반응적이지 않은 교사가 존재할 수 있다.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사가 필요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은 과연 단지 교사의 변화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지 공공성의 개념에서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문헌

경기도 교육청 (2012). 2012 혁신유치원 운영기본 계획(2012. 6) 경기도 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김은설 (2014).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분석. 연구보고 2014-17.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유해미, 엄지원 (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희연 (2013). 영유아보육, 교육에서의 공공성의 의미 탐색. **생태유아교육연구, 12**(4), 215-243.

나정 (1997). 유아교육의 교육체제 확립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교육개혁정책연구 보고서 97-1. 교육개혁위원회.

나정, 김효겸, 박재윤, 장영희, 정미라 (1997).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97-62,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신동주, 김재웅 (1996). **유치원 교육 공교육화**. 서울: 양서원.

나정, 천세영, 장명림, 이영미 (1996) 유치원 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96-19. 한국교육개발원.

당정, 보육교사 자격취득 국가고시 전환 추진 (2015. 1. 27). **한겨레**, 출력일 2015년 1월 29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5428.html

박창현 (2012). 유아교육과정 실행과 영향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창현, 나정 (2012). 유아교육기관, 교사 및 유아 집단 특성에 따른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99-125.

박창현, 박찬옥 (2012). 유아교육기관장의 운영능력, 유아교사의 역량, 교육과정 실행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6**(3), 245-247.

백선희 (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 2011-37-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최윤경, 김문정 (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연구보고 2011-21. 육아정책연구소.

염지숙 (2011).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의 유치원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유아교육학논집, 15**(6),

295-310.
이기숙, 홍용희, 박은혜, 김희진 (2002). 유아교육기관 인정제 모형. 교육과학연구소 2002-03. 이화교육총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이미화 (2014). 영아보육질 제고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 2014-16 육아정책연구소.
이숙자, 공병호, 성영화 (2011). 교사-유아의 상호작용과 보육교사 변인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1**(1). 1-18.
이윤경 (2002). 교사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유아발달과의 관계. **서원대학교 교육연구소, 21**(1), 199-2145.
이은해, 이기숙 (1996).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 서울: 창지사.
이정훈 (2003). 학습공동체로서의 작은 학교 운동에 관한 연구 분석. **초등교육연구, 16**(1), 23-43.
조형숙, 이경민 (2004). 영유아교사 양성체제의 정비. 2004년도 중앙유아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10-36.
최은영, 김정숙, 송신영 (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연구보고 2013-29.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장혜진 (2014). 누리과정 운영시간에 관한 쟁점 및 과제. **인문학논총 제36집**, 459-484.
황규호 (2013).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학교 교육의 질. **교육과정연구, 31**(3), 27-52.
Barnett, W. S. (2004). *Better teachers, better preschools: Student achievement linked to teacher qualifications*. New Brunswick, NJ: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al Research.
Barnett, W. S., Tarr, J., Lamy, C., & Frede, E. (1999). *Children's educational needs and community capacity in the Abbott Districts.* New Brunswick, NJ: Center for Early Education, Rutgers University.
Barnett, W. S., Tarr, J., Lamy, C., & Frede, E. (2001). *Fragile lives, shattered dreams: A report on implementation of preschool education in New Jersey's Abbott districts*. New Brunswick, NJ: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Rutgers University.
Blau, D. (2000). The production of quality in child care centers: Another look. *Applied Development Science*, *4*(3), 136-148.
Bowman, B. T., Donovan, M. S., & Burns, M. S. (2001). *Eager to learn: Educating our preschooler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Burchinal, M., Cryer, D., Clifford, R., & Howes, C. (2002). Caregiver training and classroom quality in child care center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6*(1), 2-11.
Burchinal, M., Hyson, M., & Zaslow, M. (2011). Competencies and credentials for early childhood educators: What do we know and what do we need to know. In E. Zigler., W. S. Gilliam, & W. S. Barnett (Eds.) *The pre-k debates: Current controversies & issues* (pp.73-77). Baltimore, MD: Brookes Publishing.
Clark, P. A., & Kirk, E. W. (2000). All-day kindergarten. *Childhood Education 76*(4), 228-231.
Cryan, J. R., Sheehan, R., Wiechel, J., & Bandy-Hedden, I. G. (1992). Success outcomes of full day kindergarten: More positive behavior and increased achievement in the years aft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2), 187-203.

Early, D. M., Bryant, D., Pianta, D., Clifford, F., Burchinal, M., Ritchie, S., et al. (2006). Are teachers' education, major, and credentials related to classroom quality and children's academic gains in pre-kindergarten classroom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5*(4), 177-193.

Fukkink, R. G., & Lont, A. (2007). Does training matter? A meta-analysis and review of caregiver training studi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3), 294-311.

Glauzvini, Alisa S., Readdick, & Christine A. (1994). Parent-caregiver communication and quality of care in diverse child care setting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2), 207-222.

Hayes, C. D., Palmer, J. L., & Zaslow, M. J. (Eds.). (1990). *Who cares for America's children? Child care policy for the 1990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Howes, C., James, J., & Ritchie, S. (2003). Pathways to effective teach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1), 104-120.

Howes, C. Phillips, D.A., & Whitebook, M. (1992). Teacher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 teaching in child care: Findings from the National Child Care Staffing Study. *Child & Youth Care Forum, 21*(6), 399-414.

Ishimine, K., Talyer, C., & Bennett, J. (2010). Qualit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 policy initiative for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4*(2), 67-80.

Litjens, I., & M. Taguma (2010). *Revised literature overview for the 7th meeting of the 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Love, J. M., Ryer, P., & Faddis, B. (1992). *Caring Environments: Program quality in California's publicly funded child development programs*. Portsmouth, NH:RMC Research.

OECD (2011). *Starting Strong: Curricula and pedagog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ive curriculum outlines*. Paris: Directorate for Education.

OECD (2012). S*tarting Strong Ⅲ: A quali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Phillips, D., Mekos, D., Scarr, S., McCartney, K., & Abbott-Shim, M. (2000). Within and beyond the classroom door: Assessing quality in child care cent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4), 475-496.

Phillipsen, L. C., Burchinal, M. R., Howes, C., & Cryer, D. (1997). The prediction of process quality from structural features of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3), 281-303.

Pianta, R., La Paro, K. M., & Hamre, B. K. (2008). *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 (CLASS)*. Baltimore, MD: Brookes, Inc.

Sabol,T. J., Soliday Hong, S. L, Pianta, R. C., & Burchinal, M. R. (2013). Can rating pre-K programs predict children's learning?. *Science, 341*(6148), 845-846.

Scarr, S., Eisenberg, M., & Deater-Deckard, K. (1994). Measurement of quality in childcare cent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2), 131-151.

Shonkoff, J. P., & Phillips, D. A. eds. (2000). *From neurons to neighborhoods: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Tout, T. M., & Berry, D. (2006). Quality and qualifications: links between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quality in early care and education settings In M., Zaslow, & I., Martinez-Beck (Eds.), *Critical issues in early childhood professional development* (pp. 77-110). Baltimore: Brookes Publishing.

Tout, K. M., Zaslow, M, & Berry, D. (2005). Quality and qualifications: Links between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quality in early care and education setting. In M. Zaslow & I. Martinez-Beck (Eds.), *Critical issues in early childhood professional development*(pp. 77-110).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Vandell, D. (2004). Early child care: The known and the unknown. *Merrill-Palmer Quarterly, 50*(3), 387-414.

Viadero, D. (2002). Study: Full-day kindergarten boosts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 Weekly, 21*(31), p. 14.

Wesley, P. W., & Buysse, V. (2010). *The quest for quality: Promising innovations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Eds.). Baltimore: Brook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teachers'personal background (academic, education career)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factors(founded facility type, class size, and curriculum organization type) on the quality of the classroo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fields.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di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ECEC, looking back on a traditional paradigm focused on teacher education and qualifications.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as a research metho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were more influential than teachers' education on classroom quality. Public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were reported to have higher effects than the private ones on classroom quality.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plans were suggested in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publicness of ECEC services.

▶*Key Words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quality of classroom, teacher*

논 문 투 고 2015. 02. 03.
수정원고접수 2015. 03. 13.
최종게재결정 2015. 04. 09.